

주요 투자은행의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전망 (2022.10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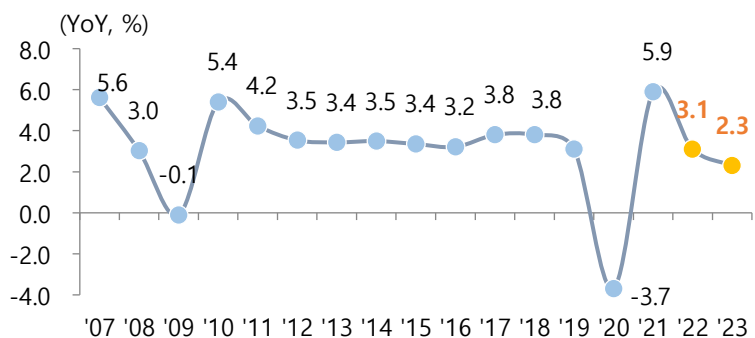
정예지 | 연구원(3705-6176)

- **세계(+0.1%p ↑):** 美中의 3분기 성장률 반등 불구 모멘텀 둔화, 연말 유럽의 경기침체 진입 가능성 등으로 글로벌 경기둔화 불가피. 주요국 고물가 지속으로 통화정책 긴축기조의 조기 전환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경기침체 우려 등에 따라 속도 조절 가능성은 잠재(IPM)
 - **미국(+0.1%p ↑):** 3분기 성장(+2.6%, qoq saar)은 순수출(기여도 +2.8%p) 및 소비(+1%p)가 견인한 반면 민간투자(-1.6%p) 및 재고(-0.7%p)는 부진. 통화긴축 및 투자 악화 영향으로 4분기 성장은 둔화 전망(+0.5%, BofA)
 - 12월 금리인상 감속 가능성이 있으나 고물가감안시 최종금리 상향 가능성도 배제 불가(주요IB 전망치 4.75~5.50%)
 - **유로존(-):** 소비 회복에 따른 독일의 플러스 성장(+0.3% qoq, 컨센서스 -0.2%)으로 3분기 성장률(+0.2% qoq)이 예상(0.0%)을 상회했으나 10월 PMI(종합 47.1/제조업 46.6/서비스 48.2)는 과거 경기침체기 수준으로 하락하며 침체 압박을 신호(Barclays)
 - ECB 회의 이후 긴축속도 완화 가능성이 대두되었으나 고물가(10월 +10.7% yoy) 지속에 따른 불확실성 잠재
 - **중국(+0.1%p ↑):** 3분기 성장률(+3.9% yoy, 컨센서스 +3.3%) 상방 서프라이즈 불구 소매판매 둔화(8월 +5.4% → 9월 +2.5% yoy), 부동산시장 위축 지속(9월 부동산투자 -12.1% yoy), 수출 부진(8월 7.1% → 9월 5.7% yoy) 등은 펀더멘털 악화 시사(Barclays)
 - 제로코로나 정책완화시 단기간전망은 개선될 기대 증가적으로는 고령화, 수출건설 의존 경제 등 한계 상존(BofA)
 - **일본(-):** 종합 PMI(10월 51.7) 2개월 연속 상승 등 서비스 부문 주도 경제재개 효과 불구,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일본은행(BoJ)의 초완화적 정책기조는 '23년말까지 지속될 가능성(Nomura 등)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기관명	2022 ^f	2023 ^f
Barclays	3.0	2.1
BNP Paribas	3.0	3.0
BoA-ML	3.4	2.4
Citi	3.0	2.0
Goldman Sachs	3.3	2.4
JP Morgan	3.4	2.3
Nomura	2.9	1.3
UBS	2.9	2.5
평균	3.1(0.1)	2.3(0)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 전년대비, 구매력평가 (PPP)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각각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2.4Q	23.1Q	23.2Q	23.3Q		
Barclays	0.0	-0.5	-1.0	-0.5	1.8	-0.1
BNP Paribas	-	-	-	-	1.9	-0.1
BoA-ML	0.5	-1.5	-1.5	-1.5	1.8	-0.4
Citi	1.7	1.5	0.5	-2.0	1.9	0.7
Goldman Sachs	1.0	0.8	1.0	1.3	1.9	1.1
JP Morgan	1.5	1.0	0.8	0.8	1.9	1.1
Nomura	-1.1	-1.7	-2.4	-1.9	1.7	-1.1
UBS	1.0	0.3	0.0	0.1	1.8	0.5
평균	0.7(0)	0(0)	-0.4(-0.3)	0.5	1.8(0.1)	0.2(-0.1)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2.4Q	23.1Q	23.2Q	23.3Q		
Barclays	-2.7	-2.9	-1.3	0.5	3.1	-1.1
BNP Paribas	-	-	-	-	2.8	0.3
BoA-ML	-0.9	-1.3	1.4	1.8	3.0	0.3
Citi	-2.4	0.6	2.1	1.5	3.1	-0.3
Goldman Sachs	-1.7	-2.3	-0.3	1.3	3.1	-0.5
JP Morgan	-1.3	-1.0	2.0	2.0	3.2	0.5
Nomura	-2.0	-3.2	-2.4	-1.6	3.2	-1.6
UBS	-0.6	0.3	2.1	1.6	2.9	0.8
평균	-1.7(0)	-1.4(0.5)	0.5(0.2)	1.0	3.1(0)	-0.2(0)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2.4Q	23.1Q	23.2Q	23.3Q		
Barclays	3.0	3.2	6.7	4.7	3.3	4.5
BNP Paribas	-	-	-	-	3.0	5.3
BoA-ML	(8.5)	(5.0)	(4.2)	(6.0)	3.5	6.0
Citi	4.6	4.8	8.0	5.0	3.4	5.6
Goldman Sachs	3.6	3.0	6.4	4.1	3.2	4.5
JP Morgan	(5.2)	(5.5)	(4.0)	(4.0)	3.1	4.5
Nomura	2.8	2.3	6.2	4.6	2.7	4.3
UBS	3.0	2.4	6.7	5.2	2.7	4.6
평균	3.4(0.1)	3.1(-0.1)	6.8(-0.3)	4.7	3.1(0.1)	4.9(-0.1)

* 분기별 전망은 전년동기대비, ()는 전기대비 연율. 평균은 전기비연율 값을 제외하고 계산.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평균의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2.4Q	23.1Q	23.2Q	23.3Q		
Barclays	1.4	0.8	0.7	0.7	1.6	1.1
BNP Paribas	-	-	-	-	1.5	0.9
BoA-ML	1.5	0.6	-1.7	-2.1	1.7	0.5
Citi	1.8	1.9	1.6	0.9	1.5	1.6
Goldman Sachs	2.0	1.4	1.3	1.3	1.6	1.6
JP Morgan	3.5	2.0	1.2	1.0	1.8	2.0
Nomura	4.2	0.4	0.5	1.1	1.6	1.5
UBS	2.1	1.7	1.4	0.7	1.5	1.6
평균	2.4(-0.1)	1.3(0.1)	0.7(0.1)	0.5	1.6(0)	1.4(0.1)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6 혹은 yjjung@kcifor.kr, 홈페이지: www.kcifor.kr